

조상이며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이라는 자아 존중에 머물며,

너희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부양해주고 전체 나무에게 사카시를 주어라.

오늘, 밥다다는 온 사방에 있는 그의 조상이며 숭배받을 가치 있는 모든 영혼들을 보고 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조상 영혼으로 여긴다, 그렇지 않느냐?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들이 사는 곳은 어디냐? 너희들의 나무를 자신 앞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아라.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있는 곳이 뿌리인 것을 안다. 너희들은 나무의 뿌리에 있기도 하고, 또한 밑동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뿌리를 통해서 나무 전체가 부양을 받는다. 너희들은 나무 전체에 있는 모든 줄기들, 잔가지들, 잎들을 부양하고 사카시를 보내주는 조상들이다. 너희들은 조상이면서, 또한 숭배받을 가치가 있다. 밑동을 통해서 나무의 마지막 잎들도 사카시를 받는다. 너희들은 자신들이 전체 나무에 사카시를 주는 이들이라고 경험하느냐? 너희들은 너희가 바로 줄기들, 가지들, 잎들인 모든 영혼들에게 사카시를 주는 조상이라는 도취감을 가지느냐? 아버지 브라마를 고조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의 자녀들인 그의 동반자들도 고조부 마스터들이다. 전체 나무의 영혼들이 너희 조상 영혼들에게 끌린다. 너희 조상 영혼들은 너희의 힘으로 그들을 부양한다. 너희 조상 영혼들 모두를 아버지가 부양해 주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모든 힘을 가지고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조상이라는 측면에서, 너희는 힘으로 그들을 부양해 준다. 요즘에, 너희들은 모든 영혼들이 불행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그들 각자의 특별한 신인들을 소리쳐 부르고 있다: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오 용서의 대양이신 조상들이여, 우리를 부양해 주소서!” 너희 조상 영혼들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느냐? 너희들은 우리가 바로 조상이라는 경험을 하느냐? 전체 나무를 보아라: 다른 종교에 속하는 모든 영혼들도 나무의 줄기와 가지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시선으로 너희들을 본다. 너희들은 그들의 조상이기도 하다. 너희가 어떤 종교의 영혼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이 너희의 나무의 줄기이며 가지라고 여기느냐? 그들이 너희를 만날 때, 그들은 너희가 그들에게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 영혼들은 너희가 그들에게 속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그들은 그런 느낌을 가져야만 한다. 너희들은 그만큼의 도취감을 갖고 내면에 자비심을 가지느냐? 그들은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나, 이제 때에 의해서 너희 조상 영혼들 모두가 힘을 가지고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부양해 주어야 한다. 그들은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 너희가 자신을 조상으로 여기는 도취감을 유지하는 만큼, 그 영혼들이 그만큼 너희에 의해서 부양 받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속의 삶에서도 부양은 어른들이 해주는 것이다. 어른들은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를 주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 모두를 여러 가지 힘으로 부양해주었듯이, 이제는 너희에게 전체 나무의 모든 줄기, 가지, 잎들을 부양해줄 임무가 있다. 너희 조상 영혼들은 그런 열의를 갖고 있느냐? 너희들은 또한 자신이 숭배받을 가치가 있는 영혼이라는 도취감을 갖고 있느냐? 전체 드라마에서 보아라, 어떤 위대한 영혼이나 종교의 창시자도 너희 영혼들과 규율에 맞게 숭배되는 만큼 숭배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숭배는 규율에 맞게 이루어진다: 너희들에 대한 아르티(arti, 접시에 켜진 디파크-등불로 숭배하는 형태)와 보그를 드리는 것; 다른 아무도 이런 식으로 숭배되지 않는다. 너희가 기억되는 방식과 너희의 찬양이 노래되는 방식도 또한 규율에 따른 것이다. 다른 아무도 이런 식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따라서, 너희들은 조상 영혼이면서, 또한 숭배받을 가치가 있다. 전체 드라마에서 다른 아무도, 너희들처럼 숭배되거나 기억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숭배받을 가치 있는 조상 영혼들을 보며, 밥다다는 참으로 기쁘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는 이런 노래가 계속 들린다: 와 전체 나무의 나의 조상들이며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들아, 와! 요즘 밥다다는 너희 모든 자녀들을 너희의 자아 존중의 형태로 보길 원한다. 너희 모두를 아버지와 대등한 형태, 완전하고 완성된 형태로 보길 원한다. 그렇게 하려면, 너희 자녀들은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밥다다는 비록 너희 모든 자녀들이 노력을 아주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희 각자는 자신이 하는 노력에 “사다(sada, 언제나)”라는 말을 붙여야 한다. 너희는 이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에게 묻는다: 밥다다가 너희 모든 자녀들을 고귀한 자아 존중을 가진 형태로 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그런 고귀한 자아 존중을 가진 이로 여기느냐?

밥다다는 자녀들도 이제는 그들의 왕국으로 가길 원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마음 속에서 계속 이런 노래를 부른다: “우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는 귀향길에 올라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밥다다도 또한 앞에서 너희에게 말해주었다: 이러저러한 봉사로 언제나 너희 자신을 바쁘게 하여라.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 모두가 여전히 봉사에 대해 관심과 열의, 열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밥다다는 아주 좋은 봉사 소식을 듣는다. 그러나 너희들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밥다다는 특별히 너희 자녀들의 주의가 이런 점에 이끌리게 하고 있다: 단지 말로만 봉사하지는 말아라. 너희들이 봉사를 할 때는, 동시에 3가지 종류의 봉사를 해라: 너희 마음으로 사카시를 주고, 말로 이 지식을 주며, 행동, 즉 연결과 관계에서는, 너희의 얼굴을 통해서, 그것이 동시에 봉사에서 영향력을 끼칠 그런 봉사를 해라. 3가지 종류의 봉사를 동시에 해야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영혼들이 봉사 안에서 어떤 차이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뭔가가 변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동시에 3가지 종류의 봉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말을 통해서 봉사하고 있을 때, 또한 너희 마음을 통해서도,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도 봉사가 일어나는지 체크하느냐? 즉, 너희들의 관계와 연결을 통해서도 봉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느냐? 자기가 3가지 종류의 봉사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은 손들어 보아라! 너희들은 3가지 종류의 봉사를 모두 하고 있느냐? 그러니, 이제 주의를 기울여라! “때때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은 봉사를 한다, 그런데 너희 자신의 내면에서, 그리고 너희의 동반자들과의 관계에서 충족감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봉사의 결실은 충족감과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각자가 이것을 체크해라: 너희들은 봉사를 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너희 스스로와 너희의 동반자들, 그리고 분위기에 충족감의 과동이 있을 때, 바로 그럴 때 봉사에 행복이 있다. 너희들은 너희가 하는 봉사의 성공에 대해서 특별히 세 가지 것들을 들었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기억해야만 한다. 첫째는, 봉사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의식을 뜻한다 (니미트 바브). 둘째는, 겸허의 느낌이다 (바브나). 셋째는, 순수하고 다정한 말이다. 의도(바브), 순수한 느낌(바브나), 그리고 천성(스와바브)이다. 봉사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있을 때, 그런 다음 너희 자신은 만족할 것이며, 너희의 동반자들도 또한 만족할 것이고, 너희들이 봉사해주는 이들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도구라는 의식을 가진 이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것이다. 만일 도구라는 의식이 없다면, 그들은 아버지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봉사할 때마다, 너희들의 의도, 느낌, 천성이 정확했는지 점검해라. 요즘에, 밥다다는 그런 것이 주된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 너희 각자가 봉사를 위해서 가는 곳마다, 너희들의 동반자들이 완벽하게 머물렀는지를 점검해라. 봉사에서의 성공은 충족함의 결실과 행복을 받는데 있다. 그와 더불어, 밥다다는 한 가지에 대해서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다; 걷고, 움직여 돌아다니며, 집회 안에 있는 동안, 너희들은 봉사에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서로를 영혼으로 보아야 한다. 너희들은 영혼의 형태로 서로를 보고, 또한 그것을 연습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영혼을 볼 때, 너희는 그 영혼을 그의 본래 산스카라의 형태로 보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섞인 산스카라로 그 영혼을 보느냐? 너희들은 다른 이들을 영혼들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합격했다. 그러나 어떤 산스카라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보느냐? 너희들은 그 영혼들의 본래의 산스카라로 그들과

연결되느냐? 아니면 그들의 현재의 산스카라도 너희 앞에 나타나느냐? 따라서 아버지가 말한다: 오늘부터는, 상대방을 영혼의 형태로 보는데, 그 영혼을 본래의 산스카라의 형태로 보아라. 너희들이 그런 형태로 그 영혼들을 본다면, 너희 사이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너희들은 영혼을 보기는 한다. 그러나 각 영혼의 현재의 산스카라가 무엇이든, 그것이 너희 앞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런 완전한 단계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자, 그의 본래의 산스카라로 각각의 영혼을 보아라. 그렇게 하면, 이 집회 안에서 일어나는 장애들이 끝날 것이다.

이 브라민 가족은 고귀한 가족이다. 이 가족에 대한 엄청난 찬양이 있다. 너희들이 이 신의 가족을 계속 반복해서 찾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전체 사이클 안에서 이 신의 가족을 단 한 번만 찾는다. 전체 사이클 동안, 너희들은 그런 거대한 가족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가족의 특별함을 안다는 것과 가족과 함께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또한 큰 과목이다. 너희들은 일찍이 이 지식의 기반은 믿음이며, 이 믿음에는 4가지 것들이 있다고 들었다: 아버지인 다다가 그 안에 포함되고, 그 다음 이 지식에 대한 믿음, 드라마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믿음이다. 너희들은 지각에 믿음을 가진 이들이며, 따라서 쉬운 노력가들이 된다. 너희들이 밥다다에게 믿음을 갖고 있듯이, 가족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너희들이 뭔가를 포장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네 면을 단단히 조인다. 만일 너희들이 한쪽 면이라도 딱 조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덜컥거리며 소리가 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이 지식, 그리고 이 지식 안에서 특별히 드라마, 그리고 가족이다. 만일 4가지 모두가 강력하지 않다면, 장애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장애를 극복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한 인식, 가족에 대한 사랑, 서로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다.

너희들은 조상들이고, 숭배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자신에게, 그리고 너희의 동반자들에게 이렇게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어떻든, 너희는 등수대로다. 그러나 브라민 가족의 특별한 과업은 축복을 주고 축복을 받는 것이다. 어떤 자녀들은 말한다: 다른 이들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들은 축복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화를 낼 것이요. 밥다다가 말한다: 좋다, 만일 그들의 산스카라 때문에, 그들이 나쁜 염원을 주고 있어서, 너희들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지만, 그들이 나쁜 염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만일 그들이 나쁜 염원을 주고 있다면, 누가 그것들을 받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받고 있는 이들이 너희들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냐? 그들이 주고 있는 이들이라며, 너희들은 그것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그러니 왜 그들의 나쁜 염원들을 받아들인 것이냐? 만일 너희들이 그들의 본래 산스카라의 형태로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 너희들은 자비를 가질 것이다. 너희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라! 너희들이 받는 이들이니까, 그들의 나쁜 염원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것들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라.

밥다다는 이제 너희에게 오늘을 위한, 그리고 다음 시즌 바바가 올 때까지를 위한 숙제를 주고 있다. 너희들이 영혼의 형태로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현재 산스카라의 형태로 그 영혼을 보지 말아라. 너희들이 “영혼”이라고 말할 때, 그의 본래 산스카라의 형태로 그 영혼을 보아라. 너희가 그 영혼과 관계를 맺거나, 그 영혼을 볼 때, 그런 시선으로 그 영혼을 보아라. 그러면 너희의 노력이 집중적인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지금 너희 태도와 시선을 바꾼다면, 그런 상황들은 모두 끝날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영혼들을 보든지, 밥다다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브라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임무는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너희들은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을 주고,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산스카라로 영혼들을 보고, 그렇게 움직여 나아가라. 바바는 너희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다. 너희들은 또한 앞에서 그것을 들었다.

가끔, 집회 안에서, 너희들은 파르-다르산(다른 이들을 보는 것), 파르-친탄(다른 이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 파르-마트(다른 이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 끌리게 된다. 지금은 이런 3가지의 “파르(par)”를 잘라버리고, 단 한 개의 “파르”만 간직해야 하는데, 그것은 “파르-우프카르(다른 이들을 드높여 주는 것)”이다. 너희들은 다른 이들을 드높여 주어야 한다. 너희들은 다른 이들을 드높여주는 이들도이다. 브라민의 천성은 다른 이들을 드높여주는 것이다.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말고, 저 “파르”를 잘라버려라. 저 3가지 모두가 아주 큰 손실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제나 너희의 자아 존중을 기억해야 한다: 브라민 영혼인 나 자신의 자아 존중은 다른 이들을 드높여 주는 것이다. 다음 시즌에는, 밥다다가 너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이런 변화를 보길 원한다.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손을 들어 보아라! 너희는 손을 드는 것에서는 아주 훌륭하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좋다. 밥다다는 축하를 보낸다. 계속해서 서로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어라.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밥다다에게 “굿 나잇”이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하루 종일 동안 좋은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전체 차트를 바바에게 주어라. 너희들이 무엇을 했든, 그것에 대한 차트를 주고, 너희의 지각을 비운 다음, “굿 나잇”이라고 말해라. 아버지에게 “굿 나잇”이라고 말하고, 아버지를 기억하며 잠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아주 푹 잠자게 될 것이다. 우선 너희 자신을 비워라. 어떤 것도 너희 지각 속에 간직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전체 차트를 아버지에게 주면, 너희가 다람라지의 나라로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님은 정직한 마음에 대해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숙제를 받았다. 우선, 너희들은 조상이며 숭배받을 가치 있는 형태로 걷고 움직이는 동안 봉사를 할 수 있다. 아버지는 딸 자나크가 건강이 좋지 않았어도, 그녀의 마음으로 카라치에서의 봉사를 위해 사카시를 보내준 것을 보았다. 누가 그것을 위한 도구가 되었든, 실제로는 이 사람이 그것을 했다. 그곳에 있던 영혼들이 사카시를 받았으며, 그들은 열의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밥다다는 그런 실제적인 예시를 보았다. 그러니 너희 모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은 불행한 이들, 울부짖고 있는 이들에게 행복의 물결이 가 닿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너희들의 신봉자들이 이렇게 너희를 소리쳐 부르고 있다: “언제 우리의 신인들이 와서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인가요?” 너희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것을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들은 너희 특별한 신인들 모두를 향해 그렇게 외치고 있다. 너희들은 누가 너희의 신봉자들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봉자들은 그것을 안다. 그들은 소리쳐 부르고 있다. 너희 브라민 영혼들 각자에게는 신봉자가 있다. 너희들 중 어떤 이들은 조금 느슨하고, 덜 영리하겠지만, 그래도 너희에게도 신봉자들이 있다. 너희들은 뿌리에 앉아 있고, 그러니 너희의 역할은 사카시를 보내주는 것이다. 자 이제는, 너희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늘려라 (만사세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라 더 바쁠수록, 그만큼 더 많이 장애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마음을 통해 봉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것은 아는 이들은 손을 들어 보아라! 좋다, 손을 내려라! 너희들은 그것을 안다. 좋다, 실제로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는 이들은 손을 들어 보아라! 너희들은 이것을 계속 하느냐? 좋다. 너희들은 그것을 규율에 맞게 정기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단지 가끔씩만 하느냐? 만일 너희들이 그것을 가끔씩만 한다면, 이제는 규칙적으로 만들어라. 만일 너희들은 그것을 조금만 하고 있다면, 그것을 늘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전체 사이클의 기반이 지금 현재 너희가 하는 봉사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숭배자가 되든, 왕국을 차지하는 이들이 되든, 그 두 가지의 토대는 지금 현재 너희가 하는 봉사, 지금 너희의 단계, 지금 너희가 하는 말, 지금 너희가 맺는 관계와 연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밥다다는 다음 시즌 첫 번째 미팅에 올 때, 그것을 원한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요청한,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너희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이유로 첫 번째 미팅에서 모든 이들의 결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때보다 너희 퍼센티지가 더 늘어나야 한다. 사실, 밥다다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왔다: 만일 너희들이 뭔가를 하려면, 바로 지금 해라. “언제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밥다다에게 “때때로”라는 노래를 많이 불러준다. 너희들은 아주 좋은 노래들을 많이 부르지만, 밥다다는 “때때로”라는 노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아비 아비(지금 당장)”라는 노래를 좋아한다. 즉각적인 기부가 가장 위대한 자선을 가져온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느냐? 앗차.

밥다다는 온 사방에서 온 자녀들 모두를 보면서 기쁘는데, 너희 자녀들 없이 밥다다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하고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매일 계속해서 너희 자녀들을 불러내는 것이다. 집중적인 노력이 자녀들아, 다정한 자녀들아,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지금 함께 돌아가자!

온 사방에서 온 너희 자녀들 모두에게, 너희들이 직접 밥다다 앞에 있든지, 아니면 어딘가 다른 곳에 앉아 있든지, 너희 모두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아버지가 누구를 기억하고 있겠느냐? 그는 온 사방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에 대해, 각 자녀 하나하나가 반드시 아버지와 대등하게 되어야 한다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각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 물론 그는 너희가 등수대로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너희 모두가 자신의 등수에 따라 완전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느냐? 바바는 너희 각자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각자의 노력도 본다. 아버지는 많은 사랑을 느낀다. 너희들이 노력을 할 때, 그는 너희가 애쓰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랑을 느낀다. 사랑에 넋을 잃고 있어라. 너희들이 더 많이 사랑에 빠질수록, 더 적게 노력할 것이다. 또한, 밥다다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가지는 것에 대해 너희의 손을 들라고 말할 때, 너희 모두는 아주 높이 손을 든다. 아버지는 너희가 그에게 사랑을 가지는 것을 받아들인다. 너희 대다수가 사랑의 과목에서는 합격했다. 그러나 상황 속에 갇힐 때는, 너희가 아버지를 잇는다.

온 사방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수, 수백만 배의 사랑과 기억과 애정을 보낸다. 모든 이들에게, 주인인 너희 자녀들 모두에게, 아버지가 수백, 수천의 인사를 보낸다. 날아가면서, 계속 다른 이들도 날게 해주어라. 앗차.

축복: 너희 자신의 단계로 너희의 모든 장식품을 사용해서,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하고, 무체가 되어라.

모든 장식품을 다 가지고 있는 이들은 결코 자기 몸에 대한 교만을 가질 수 없다. 무체가 되어 너희의 모든 장식품을 사용하는 것이 “만마나바브”와 “마디야지바브”가 되는 것이다. 본래 단계에 안정해 있을 때, 너희는 모든 역경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 모두의 다양하고 오래된 종류의 성질이 끝날 것이다. 너희들이 영혼인 너희 스스로의 의도를 알게 될 때, 모든 사물들이 가진 성질들의 대립이 끝날 것이다. 그런 다음 너희들은 자기 내면에서 모든 상황을 직면할 힘을 기를 수 있다.

슬로건: 너희들이 자기 마음 속에서 단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아버지가 협조해주는 천 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 음 산티 OMSHANTI ***

아비약트 신호 - 변함없이 명량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느긋해지고 관용적이 되어라: 자기 자신의 과거나 다른 이들의 과거를 보지 않고, 1초 만에 마침표를 찍는 이들의 성질은 느긋하다. 그들의 느긋한 성질에서, 즉 그들의 눈, 얼굴, 활동에서 너희는 실질적인 다정함과 명량함을 볼 수 있다. 느긋한 성질의 단계를 가진 이들은 다른 이들도 느긋하게 만든다. 느긋한 성질이란, 너희들이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이 본질적이어야 하며, 너희가 오직 본질만을 선택한다는 뜻이다.